

‘눈이 부시게’ 김혜자, 매순간 명장면 만든 연기장인



“오늘을 살아주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눈이 부시게’에는 혜자(김혜자 분)가 과거에 얽힌 기억을 모두 되찾으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모

엔딩 나레이션, 마지막까지 눈물샘 자극

습이 그려졌다. 12회에서 혜자는 시계에 관한 기억을 되찾아갔다. 과거 준하(남주혁)와 결혼한 혜자(김혜자)가 그에게 시계를 줬지만, 준하가 고문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시계의 행방이 묘연했던 것.

그리고 준하의 시계는 그를 고문한 경찰이자, 휠체어 합아버지(전무송)가 차게 됐다.

혜자는 준하를 떠나보냈던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리며 “형생 외로웠던 사람, 혼자 가게해서 미안해”고 울먹거렸다.

삶의 끝자락에 서있던 혜자는 불행하지 않았다. 가장 행복한 시간에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준하의 환영을 보게 됐다. 준하는 그를 품에 안으며 “이제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 어디 가지말고”라고 전

했다.

‘눈이 부시게’는 타임워프를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듯 했지만 10화부터는 김혜자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여기에서 김혜자의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했다.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한 김혜자는 앞서 제작발표회에서부터 설렘을 전했던 상황. 그는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드라마”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시계를 물려준 한지민은 70세 노인, 김혜자로 변한다.

감작스러운 타임워프는 김혜자 역시 70대 노인 역을 물론 25살 연기를 펼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김혜자는 그간 연기 내공을 활용해 누구보다 25살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 세대를 초월한 만남부

터, 몸은 70대지만 여전히 젊은 혜자까지 그려냈다. 그리고 꿈 속에서 남주혁과 이뤄질 수 없는 만남 후에 현실로 돌아와 목놓아 우는 모습까지. 그야말로 김혜자가 연기한 매순간은 명장면이었다.

김혜자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연기력을 터트린 것은 10화부터였다.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라는 한 마디만으로 극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감작스럽게 자신의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덩달하게 기억을 회상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것.

그의 연기력에 힘입어 ‘눈이 부시게’ 역시 입소문을 탔고, 3.2%의 시청률로 시작했던 드라마는 12회에서 9.7%로 막을 내렸다. 특히 엔딩 나레이션은 마지막까지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김혜자의 나레이션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눈이 부시게’는 끝까지 울림을 선사하며, ‘인생드라마’ 반열에 우뚝섰다.

“일한 만큼만 벌어!” 그날 ‘돈’이 말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사람 나고 돈 낳지, 돈 나고 사람 낳나. 이런 평범한 진리도 다르게 해석되는 동네가 있다.’

그곳에선 사람 위에 실적이 있고, 실적 위에 돈이 있으니 말이다. 영화 ‘돈’(감독 박주리)은 여의도 증권가에 뛰어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황금 시장에 막 입성한 한 청년의 이름은 조일현(류준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주식 브로커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하지만 평범한 흡수자 청춘의 현실은 이상과는 한참 다르다. 실적이 곧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곳에서 거액 수수료 성적은 몇 달째 0원. 그의 위치가 위태롭다.

그러던 조일현에게도 기회가 온

다. 불법 작전 설계자인 변호표(유지태)로부터 클릭 몇 번으로 거액을 손에 쥐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일현은 변호표가 내민 검은 손을 잡고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벌기 시작한다. 자본 시장을 감시하던 금융감독원 직원 한지철(조우진)은 수상한 김새를 채고 조일현을 조여온다. 범추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조일현은 어떤 선택을 할까.

금융 범죄를 소재로 했지만, 영화의 진입 장벽은 높지 않다. 영리하게 선택과 집중을 한 덕분이다.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덜었다.

대신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연출로 틈을 때웠다. 도표, 그래프, 게임에서 불법한 게이저를 적절히 활용해 쉽게 풀어냈다. 신물, 스포이드



공매도 같은 전문 용어가 등장하지만, 업계를 잘 모르는 사람도 무리 없이 내용을 즐길 수 있다.

증권가의 단편을 보여주는 묘사는 꽤나 흥미롭다. 실재 없이 울려대는 매수·매도 주문 전화, 수구쳤다가 급락하는 그래프, 조 단위로 오가는 수억 원의 돈까지, 빠른 호흡으로 몰아친다.

업태의 특성을 살린 편집 덕분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도 긴장과 생동감이 묻어났다. 카메라가 8시 50분 50초를 비추는 때 저절로 숨이 멎추고 폐장을 알리는 3시 벨이 울

리면 긴장이 탁 풀리는 것도 같은 이유일 테다.

편집점도 흥미롭지만 무엇보다 영화의 장점을 꼽는다면 사건이 아니라 인물에 집중한다는 거다. 주식 영화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결국 성장 드라마인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주인공이자 화자인 조일현의 매력은 탁월하다. 보통 사람의 힘을 보여준다.

영화는 여타 범죄물과 달리 비범하거나 뛰어난 엘리트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대신 주위에서 흔히 마주할 법한 한 청년을 비추며 “누구에게도 닮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득한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만 같은 금융시장에서 어딘가 어수룩하고 인간적인 주인공이라 공감하게 된다.

이 장점은 후반부에 가서 두드러진다. 점점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된다. 나아가 고민한다. ‘나

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복잡한 서사도 범죄 오락물하면 떠오르는 반전 없이도 몰입도가 상당히 높은 이유다. 물론 조일현의 웃을 입은 배우 류준열의 입체적인 연기가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영화는 못는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될 거냐, 지배자가 될 거냐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조일현의 흥망성쇠를 따라가며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돈의 맛’에 취하지 않아야겠다고.

영화 속 한지철의 대사가 대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한 만큼만 벌어, 일한 만큼만.” 그보다 더 많은 걸 바라기에 이 세상엔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 당연한 진리가 되려 불편하게 다가오는 세상에서 그의 외침이 더없이 외로운 이유기도 할 테다.

20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15분.

‘女風이 분다’ 백예린→헤이즈, 음원차트 걸파워



‘빙고 듣는’ 여성 가수들이 대거 컴백, 음원차트를 뒤흔들고 있다. 이들은 그야말로 ‘걸파워’를 제대로 보여주며 음원팬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20일 오전 8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플랫폼 멜론 실시간 차트 1위는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거야’가 차지했다. 백예린의 또다른 곡 ‘하늬비행’은 3위

‘별새2시’, 이소라 ‘신청곡 등 다 양한 세대의 여가수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2018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송 ‘Love you on Christmas’ 후 2년 3개월여만에 컴백한 백예린은 전곡을 차트인 시킨 것은 물론 음원차트를 울릴하며 엄청난 음원파워를 보여 주고 있다. ‘음색 강패’라 불릴 정도로 독보적인 보이스를 가진 백예린은 남다른 감성으로 자신만의 감수성을 음악에 녹여내 음원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백예린과 차트 경쟁을 하게 된 헤이즈는 차근차근 자신의 입지를 다지며 성장, 음원권 타이틀을 거머쥔 가수다. 래퍼로 얼굴을 처음 알린 그는 매력적인 보컬을 내세우며 더욱 인기를 얻었다. 헤이즈는 데뷔 5년만에 처음으로 발표한 정규앨범 ‘썬스 파인’에 헤이즈는 남다른 스토리와 자신의 실제 이야기

를 임혀 듣는 재미를 더했다.

컴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속에 컴백한 박봄은 예상을 깨는 성적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박봄은 과거 불거졌던 마약 의혹 등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던 상황. 논란 속에 발표한 ‘봄’이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여전한 음원 파워를 입증했다. ‘봄’은 박봄의 리드미컬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2NE1 산 디리바이 퍼처링으로 지원사격해 화제를 모았다.

최근 성숙한 여성의 매력을 담은 곡들을 연이어 발표, 큰 사랑을 받았던 마미무는 다시 비글미를 장착한 신곡 ‘고고베베’로 선진 중이다. 마미무 초창기 느낌이 훨씬 좋은 ‘고고베베’는 백예린, 헤이즈, 박봄 등 차트 상위권 여성 가수들과는 180도 다른 유행함으로 눈길을 끈다. 뛰어난 가창력과 폭발적인 성량, 무대를 휘젓는 퍼포먼스

와 무대매너가 돋보이는 라이브 무대도 호평을 받고 있다.

차트 상위를 점령하고 있는 여성 가수들의 음원 성적 추이를 볼 때 한동안 이들의 장기점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소문을 타고 음원 이용자 수치가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 게다가 이들 외에도 모모랜드, 아이즈원, 블랙핑크 등 걸그룹들의 컴백도 예고돼 있어 음원차트 속 걸파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오늘의 순세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음력 2월 15일)



▶**경계** 동쪽에서 뱀 맞고 서에서 분풀이한다는 식으로 밖에서 잘못된 일을 가정으로 가져 온 사람 받아주자니 1, 3, 5, 8월생 마음고생이 심한 날이 되겠다. 뱀이 부부로 모처럼 후식을 취하려 했던 날인데 상대가 그 맘 몰라주니 정말 섭섭할 듯.



▶**경계** 1, 2, 7, 8월생 요식업자 수익이 짝퉁한 날이구나. 후일 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없이 바쁠 듯. 그, 다, 비 성씨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애경사에 불참하면 평판에 금이 갈 수 있으니 주의. 오늘 동지에게 연락하면 좋은 일 있다.



▶**경계** 스트레스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1, 3, 6, 10월생은 마음 속에 묻어두지만 말고 서로 대화로 풀어야. 오늘은 친한 사람과 금전거래를 금함이 좋을 듯. 작은 일로도 우정에 금이 갈 수 있고 타산적인 관계가 되므로 삼가. 사, 천 성씨는 운전조심.



▶**경계** 누구보다 눈치가 있다. 2, 6, 7, 8월생은 재치도 겸비한 재능인이지만 손에 쥘 것이 없어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남의 도움은 생각지도 말 것. 나, 사, 흥 성씨는 스스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 운임. 대인관계시 언어에 신경써라.



▶**경계** 생각과 몸이 따로 놀게 되니 답답할 듯. 2, 9, 10월생 타인의 협조가 없이는 힘이 들겠다. 다, 비 성씨에게 도움이 될려면 성사는 가능하겠으나 자존심에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사, 천 성씨는 이사가가 있는 날.



▶**경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는 1, 4, 10, 12월생은 추위가 가고 봄으로 들어서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 단, 즉흥적인 결론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경계** 쥐를 잡는 것은 좋으나 1, 3, 9, 10월생은 독을 깨발 연려되니 욕심은 금물. 주머니가 비었다고 옛 생각이야. 불로소득은 꿈도 꾸지 말 것. 그, 다, 흥 성씨는 상대의 진실을 알지 못해 전전긍긍.



▶**경계** 그, 사, 천 성씨는 2, 5월생은 함부로 대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구설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지위에 치명적인 흠집이 생길 듯. 매사 상대를 대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음. 10, 11, 12월생은 서쪽으로의 여행은 불리.



▶**경계** 2, 4, 6, 9월생은 먼 곳에 있는 물건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것이 아니라 생각 말 것. 곧 본인 것이 될 듯. 열심히 노력하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나, 오, 천 성씨는 그동안 답답한 사정이 있었다면 오늘 풀려라.



▶**경계**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마라. 3, 8, 9월생 실력 먹음만큼 수입이 있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큰 잘못. 뱀안으로는 알 수 없는 법. 느는 것이 걱정뿐이라면 행복의 파랑새는 당신 집에 머물 수 없다. 밖의 시간이 건전하지 못하면 빨리 손을 뺐 것.



▶**경계** 분수를 알고 분명하게 서신하라. 1, 2, 4, 6월생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정음하는 것이 급선무. 여세로 현재의 상황을 가장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다. 나, 사, 오 성씨는 건강을 생각하며 후일을 보내라. 무리하면 좋지 않다.



▶**경계** 남을 믿다가 쥐가 물독에 빠지는 격. 2, 4, 7, 8월생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했다면 이쯤에서 끝을 내야 좋을 듯. 계속 투자하면 손해만 본다. 비, 다, 흥 성씨는 활력 축적을 제대로 삼아야 한다. 심신의 피로를 일소하도록 노력하라.